

“복병 찾으려면 착순보다 차신차 살펴라”

연대는 학연·지연만? 나이도 확인 상대 전적과 구사전법 분포 중요해 주행기록으로 경주의 질 판단 가능



경륜 베틱 승률을 높이기 위해 선수 간 연대, 상대 전적, 구사 전법 분포, 주행도, 주행기록, 인기순위, 배당 등을 살펴야한다. 사진은 평영스피드에서 열린 경륜 레이스 모습.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선수들의 연대

경륜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 간의 연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학연, 지연 등 연계성이 있어도 두 선수의 나이차가 많다면 실전에서 공업률이 될 수 있다. 반면 동갑내기들이나 엇비슷한 또래로 경기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면 신뢰할 만하다. 연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더라도 두 선수의 전법이 '추입(마크)+추입(마크)' 형태라면 조심해야 한다.

● 상대 전적과 구사 전법 분포

상대 전적은 논리적인 접근이 힘들고, 1:1 대결이 아니라면 점 때문에 자료분석도 어렵다. 각각 하위 착순으로도 우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대 전적은 심리적인 자신감, 징크스 등으로 참고할 만하다. 반면 선수들 간의 동반입상 횟수, 전후로 위치

했던 횟수는 전문가들이 간과하지 않는 핵심 자료다. 구사 전법 분포는 선수의 색깔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선수 명찰로 표기된 전법보다 우선해야 한다.

● 성적

일반적으로 성적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외형적인 모습에 머무르면 복병을 찾아낼 수 없다. 복병을 찾기 위해선 착순보다 차차(차신차)를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위 착순이라도 선두권에 1~2차신차로 쏘인 선수들로 전법이 추입이 아닌 자력(선행, 쫓기)이었다면 특히 눈여겨볼만하다. 반면 깨끗한 마크였음에도 차신차를 쫓지 못했거나 오히려 벌어졌다면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 주행도와 주행기록

주행도와 주행기록은 성적의 원인과 경주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다. 정면승부, 초주 위치 선정 실패(가령 7번째 자리), 진로 막힘(특히 외선 대열의 후미), 마크 다툼 등으로 하위 착

순을 기록했다면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강자들을 상대로 정면돌파(선행, 쫓기)를 시도한 선수는 가장 우선순위로 꼽을만하며 나머지 요소들도 면죄부를 줄만하다. 내선 주행 보다는 체력 소모가 큰 외선 주행에서의 진로 막힘은 눈여겨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방해받지 않은 앞 선수를 놓치는 마크 실패는 과감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 인기순위와 배당

선수들의 입상 패턴과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가령 인기순위 2위보다 3위 추과의 동반입상률이 높다면, 점배당일 경우 상대적으로 입상률이 낮다면 등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다.

● 지정훈련과 선수 인터뷰

지정훈련을 통해 비공식적인 연대를 찾아낼 수 있으나 선수들은 친분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만큼 결속력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인터뷰에선 선수들의 심리적인 묘사가 핵심인데 전략적인 부분보다 체력적인 언급이 신뢰할만하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총괄본부 '덕분에 챌린지' 동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과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사진)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국민참여 캠페인이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월 25일 미사 경정장에서 KSPO 스포츠단 펜싱팀 김정환·구본길(이상 2012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다 이빙팀 우하람(2018자카르타-팔렐방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지난해 경정 왕중왕 심상철 등과 '존경합니다'를 뜻하는 수어 동작과 감사 메시지로 의료진을 응원했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과 모든 국민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의 지목으로 이뤄졌으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다음 참여자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광명YMCA를 지목했다.

경륜경정, 어른스케 실버카 100대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6월 26일 광명 스피드에서 거동이 불편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10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박종에 광명시 노인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상 실버카로 불리는 노인 보행보조기는 무릎과 허리 질환 등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의자형태로 제작되어 보행 중 휴식용으로도 사용되고 간단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실버카는 광명시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 수혜자나 가족이 직접 수령하거나 거동 정도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전달할 예정이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실버카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야외활동 등 다양한 사회생활 참여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오경 국회의원도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인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장 김성택 △체육진흥사업본부장 오장수 △기금조성총괄본부 스포츠레저사업본부장 안경찬 △안전경영담당장 박병현 △경영혁신본부 기획조정실장 이준중 △체육진흥사업본부 기금관리실장 김재봉 △체육진흥실장 노태일 △시설관리본부 체육시설안전실장 차지는 △기금조성총괄본부 경륜경정관리본부 사업지원실장 최창렬 △ 사업서비스실장 이명규 △ 장안지점장 차차남 △ 중랑지점장 박영준 △ 관악지점장 최종필 △ 시흥지점장 채병삼 △ 일산지점장 최용필 △ 강남지점장 최홍호 △ 천안지점장 김희제 △ 동대문지점장 최법진 △기금조성총괄본부 경륜경정은영본부 경륜경정실장 오재천 △ 경정경정실장 양준택 △기금조성총괄본부 스포츠레저사업본부 투표권사업실장 이민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기획지원실장 이재환 △ 스포츠정책연구실장 권민익 △ 스포츠산업연구실장 김상훈

경정 승패 가르는 '스타트 전쟁' 주목하라

2년 내 출발위반 누적 뎀 주선보류 선수들의 출발위반 내역 확인해야 화요일 지정훈련도 꼼꼼하게 체크

경정에 있어 스타트는 탁월한 판단력과 순발력을 요한다. 1코스부터 3코스, 그리고 4코스에서 6코스의 조주거리 및 가속 타이밍이 모두 다르다. 대시계가 0초(12시 방향)에서 1.0초를 가리키는 사이에 출발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회차마다 호흡을 맞추는 모터의 성능이 각각 다르고 환경적인 요인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출발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바람과 수면에 남아있는 너울로 인해 조주거리를 벗어나거나 승부 포인트를 놓친다면 사전출발(플라이) 또는 출발지체(레이트)라는 출발위반 제재를 받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17년부터 출발위반을 범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날짜

를 소멸해 나가고 만일 유예기간 안에 한번 더 출발위반을 범하면 주선보류 1회의 제재를 준다. 구제 방안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출발위반 누적 주선보류가 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됐으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3년 동안 출발위반을 범하지 않으면 주선보류가 1회 소멸된다. 성적 부진이 아닌 출발위반 누적 주선보류를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큰 부담인 만큼 미리 출전 선수들의 출발위반 내역과 남은 소멸일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전 선수들의 스타트 감각을 알기 위해서는 지정훈련을 꼼꼼하게 지켜봐야한다. 입소 후 화요일 지정훈련과 경주 당일 오전 훈련, 시합 직전 사전 스타트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경정 선수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타트는 0.2초대 초반이다. 0.2초대 타이밍이면 외부적인 요인에도 출발

위반을 걱정할 이유가 없고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위험이 적다.

화요일 훈련 시작부터 시합 전 사전 스타트까지 플라잉을 연신 범하거나 다소 빠듯한 기록으로 주목을 받다가도 본 경주에 들어서면 주눅이 들어 늦은 출발을 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오히려 연습 초반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더라도 차츰차츰 시속을 끌어올리는 전력이나 모터가 약해도 기대 이상의 꾸준한 시속을 유지하는 선수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전문가는 "휴장기가 긴만큼 입상과 상금 수득에 대한 갈증은 모든 선수가 같을 것"이라며, "기존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중하위권 전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신예 선수라도 스타트 승부를 통해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개장 후에는 경정 전문가들의 조건과 꼼꼼한 컨디션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미래의 경륜스타' 26기 후보생 22명 입학식

아마선수 출신 17명·비선수 5명 11개월간 고강도 훈련과정 밟아

후보생들은 입학과 함께 2021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경륜선수가 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과정을 밟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주행기술, 자전거 정비기술, 체력훈련, 공정교육, 안전주행을 위한 사고 대비 훈련 등이다.

권동연 경주운영본부장은 입학식 축사에서 "최고의 경륜선수가 되기 위해 꿈을 향해 도전한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훈련 기간 동안 동료들과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한 명의 나약자 없이 전원이 졸업해 자신이 꿈꿨던 경륜 선수로서의 새로운 삶에도 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6월 24일 경북 영주 경륜훈련원에서 열린 제26기 경륜선수 후보생 입학식에서 경륜 관계자들과 후보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편 26기 후보생은 지난해 연말 선발이 완료돼 2월 14일에 입학식을 치르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과 후보생의 안전을 위해 연기돼 이날 개최됐으며 내외빈과 가족들의 참여 없이 간소하게 실시됐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토토 새 출발! 3일부터 발매 재개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 변경 환급대행 IBK기업은행→우리은행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6월 29일 0시부터 7월 2일 자정까지 일시 발매중지에 들어간다.

스포츠토토는 발매에 앞서 3일 0시부터 환급 및 환불업무 재개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발매는 3일 오전 8시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선 고객들의 혼선을 막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BI(Brand Identity)인 '스포츠토토'

를 사용한다. 고정환급률 게임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 게임 '프로토(Proto)'의 명칭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와 합법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틱맨(www.betman.co.kr) 역시 같은 주소를 통해 고객들을 찾아가는다. 스포츠토토 팬들이라면 누구나 베틱맨에서 종전처럼 구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 역시 이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환급대행은행은 기존 IBK기업은

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며,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에서도 고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김용민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사회 및 스포츠활동이 크게 위축된 시기에, 국민들의 여가생활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신뢰와 투명, 안정 속 혁신, 그리고 상생과 나눔을 핵심가치로 하는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가 1일부터(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이사 김용민)로 변경된다.